


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 국토교통부 | | 보도설명자료 | |
| | | 배포일시 | 2021.7.20.(화) / 총 1매(본문1) |
| 담당 부서 | 국토부 첨단자동차과 | 담당자 | • 과장 박문수, 사무관 김진우 • ☎ (044) 201-3847, 3934 |
| |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정책팀 | | • 팀장 김준동, 사무관 황선영 • ☎ (044) 202-6150, 6152 |
| 보도일시 | |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



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(C-ITS) 구축 사업을 위해 긴밀히 협력 중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한국일보, '21.7.20) >

◆ “10년 공들인 자율주행, 부처 갈등에 올스톱”

- 자율주행 인프라인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(C-ITS) 본사업이 관계부처 갈등으로 인해 사실상 중단,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재부에서 제기한 기술 검증에 들어갈 공산이 크고 적게는 4년, 많게는 10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

-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(C-ITS)의 통신방식 관련,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임혜숙)는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고 미래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·노력 중이며,
 - 한국판 뉴딜 상 C-ITS 구축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아울러, 양 부처는 다양한 C-ITS 통신방식에 대한 비교·실증을 조속히 착수·완료하기 위해 협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.

| | | |
|---|---|--|
|  <small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small> |  |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김진우 사무관(☎ 044-201-3934)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황선영 사무관(☎ 044-202-615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|
|---|---|--|